

변화 필요한 벤투호 '이승우 카드' 꺼내들까

아시아컵 16일 중국과 조별리그 3차전

개인 돌파 주저 않는 '공격형' 드리블·골 결정력·쇼맨십 갖춰 벤투 감독 '베스트 11' 고민 '손' 출전 불투명... 대체 자원 관심

대체 멤버로 벤투호에 승선한 이승우(엘라스 베로나)가 중국과 2019 아시아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6일 무릎을 다친 나상호(광주) 대신 아시아컵 최종명단에 뽑히지 못했던 이승우를 전격적으로 호출했다. 소속팀에서 활약이 미미하고 같은 자리에 능력 좋고, 경험 많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많아서 이승우를 뽑지 않았다는 게 벤투 감독의 설명이었다. 대신 지난해 아시아게임은 물론 프로축구 K리그2에서 득점왕(16골)까지 따낸 나상호에게 아시아컵 출전 기회를 줬다. 나상호가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측면 날개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점에서 벤투 감독은 좋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나상호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전지 훈련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다. 그는 재활에 힘썼지만 끝내 실전을 치를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의무팀의 결정이 내려졌다. 벤투 감독은 이승우를 급히 호출했다.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인 이승우는 연령별 대표부터 '복록 튀는' 실력으로 팬들의 큰 관심

을 끌었다.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결정력, 그리고 화려한 쇼맨십은 대중의 인기를 끌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승우는 한국 선수들이 다소 주저하는 상대 수비진과 1대1 개인 돌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장점이다. 국내 지도자들은 이승우에 대해 "훈련 모습과는 달리 실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한다. 그만큼 경기 상황에 따른 '개인 전술'이 좋다는 평가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승우를 선택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벤투 감독이 이승우를 발탁했던 지난 10월 평가전에서 소속팀에서 이승우가 제대로 뛰지 못할 때였다. 이런 가운데 이승우는 지난해 11월부터 팀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6경기 연속 출전에 시종 1호골도 맛보며 컨디션이 올라왔다. 한국은 아시아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2연승을 거뒀지만 득점력(2골)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한중'을 앓던 중국은 최근 한국과 2경기 연속 무패(1승 1무)를 거두며 자신감이 올랐고,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5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다. 한국과 나란히 승점 6이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중국이 C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중국과 오는 16일 펼쳐질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조 1위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이런 가운데 대표팀에선 측면 날개 자원인 이재성(울슈타인 킷)과 '중원 조율사' 기성용(뉴캐슬)이 부상으로 잠시 전역에서 빠진 터라 벤투 감독은 중국전 베스트 11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 손흥민(토트넘)도 14일 대표팀에 합류하지만 무리하게 기용할 필요가 없는 만큼 벤투 감독은 토너먼트에 대비해 이재성과 손흥민을 쉬게 하고 이승우 카드를 꺼내 들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꽃길' 가려면 중국전 승리 필수

2위로 16강 진출시 8강서 이란·4강서 일본 만날 가능성 높아

'가시밭길이나 꽃길이나.' 59년 만의 아시아컵 정상탈환을 노리는 벤투호가 결정력 부족에 허덕이면서 우승을 향한 꽃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새벽 펼쳐진 키르기스스탄과 아시아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수비수 김민재(전북)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진판승을 거뒀다. 지난 7일 황의조(김바 오사카)의 유일한 득점으로 '약체' 필리핀에 1-0 신승을 거둔 벤투호는 2연승(골득실+2)을 거두면서 중국(2승·승점 +4)과 최종전에 상관 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이 중국을 물리치고 C조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비기면 골득실에서 밀려 조 2위가 된다.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똑같지만 조 1위와 조 2위는 사실상 '꽃길'이나 '가시밭길'의 차이이다. 한국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르면 A/B/F조 3위

가운데 한 팀과 8강 진출권을 놓고 싸운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전력이 낮은 팀과 만나게 돼 수월하게 8강을 노릴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이 조 1위를 하면 16강전은 중국전이 끝나고 옛세 뒤인 22일에 펼쳐진다. 충분한 휴식도 보장돼 부상 선수와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토트넘)도 체력을 끌어올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밀려 조 2위로 16강에 오르면 일정이 피곤해진다. 조 2위를 하면 한국은 16강에서 한국은 A조 2위팀과 8강 진출을 다툰다. 지금으로서는 인도와 태국이 유력하다. 다만 이러면 경기는 20일 치러진다. 조 1위를 했을 때보다 이틀을 덜 쉬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조 2위를 하면 8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이란을 만날 공산이 크다. 벤투호가 이란을 꺾는다면 4강 상대는 '라이벌' 일본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시밭길'의 연속이 된다. /연합뉴스

임성재, 소니오픈 '톱 10' 보인다

3R 4연속 버디... 중간합계 공동 14위·강성훈 공동 21위

미국프로골프(PGA) '루키' 임성재(21)가 소니오픈 셋째 날 뒷심을 과시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임성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7천4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40만 달러)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3개를 엮어 5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10언더파 200타로 공동 14위다. 선두와는 8타 차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선전한다면 데뷔 후 두 번째 톱 10 진입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지난 시즌 PGA 2부 투어 웹닷컴 투어 상금왕을 차지해 PGA 투어에 입성한 임성재는 지난 10월 데뷔전인 셰이프웨이 오픈에서 공동 4위를 차지하며 '슈퍼 루키'의 등장을 예고했다. 1라운드에 1오버파를 쳤으나 2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며 컷을 통과한 임성재는 이날 첫 8개 홀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아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그러나 9번 홀(파5)에서 완벽한 샷과 퍼트로 기분 좋은 이글에 성공했다. 13번 홀(파4) 보기도 다시 1타를 잃었으나 15~18번 홀에서 1~5m 거리 버디 퍼트를 쏙쏙 집어넣으며 4연속 버디 행진을 펼쳤다. 완벽한 마무리로 3라운드를 마친 임성재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신인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강성훈(32)도 5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8언더파로 공동 21위에 자리했다. 양용은(47)은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해 4언더파 공동 56위로 처졌다. 이날 3라운드에서는 맷 쿠치(미국)가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으며 중간합계 18언더파로 선두를 지켰다. /연합뉴스



이강인, 17세 327일로 라리가 데뷔

한국인 최연소 유럽 5대리그 데뷔... 다음은 손흥민 최연소 득점 도전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사진)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1부리그) 무대를 밟으며 한국 축구 유럽 진출사를 새로 썼다. 이강인은 13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메라리가 바야돌리드와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2분 데니스 체리세프를 대신해 출전했다. 그는 정규시간 3분과 추가시간 약 4분을 합해 약 7분을 뛰었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경기였다. 발렌시아 구단은 "2001년 2월 19일생인 이강인은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발렌시아 팀 역사상 최연소 리그 데뷔전을 치른 외국인 선수가 됐다"고 밝혔다.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국왕컵 에브로와 32강전에 출전해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유럽 프로 축구 공식경기 데뷔기록과 최연소 발렌시아 외국

인 선수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인 프로축구 1부리그 프리메라리가 무대까지 밟으며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이강인은 한국 최연소 유럽 프로축구 공식경기 데뷔기록을 세운 데 이어 한국 최연소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프랑스 리그앙) 출전 기록도 썼다. 이전까지는 2009년 프랑스 리그앙 발랑시엔에서 났던 남태희(당시 만18세 361일·현 알두하일)가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제 이강인은 최연소 유럽 5대 리그 득점에 도전한다. 이 기록은 손흥민(토트넘)이 갖고 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뛰던 2010년 10월 30일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 114일이었다. /연합뉴스